

'1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계획

2010. 12.

소 상 공 인 정 책 국
소 상 공 인 지 원 과

목 차

I . 현황 및 문제점 1

1. 현황 1

2. 문제점 2

II . '1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계획 . . 3

1. 기본 방향 3

2. 세부 운용 계획 4

III . 기대효과 7

I.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999년부터 시행돼 제도권 금융 이용이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

(단위: 개, 억원)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12.17
지원업체	14,613	10,518	14,313	10,310	13,914	14,756	19,605	16,300	12,449	8,531	45,714	9,435
지원금액	3,000	2,400	3,700	2,500	3,500	3,451	5,150	4,395	3,442	2,672	11,217	2,692

-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 증가 등 자금지원의 효과 입증

- 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액은 0.8억원, 생산은 1.56억원, 부가가치는 0.65억원 증가하고, 2.8명의 고용 유발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성과분석 및 효과성증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한남대, '09.12)

- 수혜자를 경쟁력제고사업 참여자로 한정해 자금지원 효율성을 제고한 우선지원자금은 '07년부터 시작돼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단위: 억원,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10.31
우선지원자금	21	220	1,003	622
총금액 대비 비율	0.6	8.23	8.9	25.9

-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사업 참여자부터 '07년에 우선지원대상에 선정됐으며 '10년에는 신사업모델개발지원 등 범위가 확대

2 문제점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자체 자금 등과 유사하며 지원범위가 광범위해 소상공인 창업률 및 경쟁력 제고에 한계 노출
 - 현재 지자체 및 미소금융재단 등의 지원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격이 유사해 중복지원의 가능성 상존

< '10년 소상공인 자금 현황 >

구 분	지자체 자금	미소금융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지역내 소상공인	저소득층	모든 소상공인
지원한도	2~5천만원	5백~5천만원	5천만원(나들가게 1억원)
금리	4%대, 1~2%이차보전	2~4.5%	4%대
대출기간	2~5년	5년이내	5년
시행기관	지자체	미소금융재단	중소기업청
지원규모	19,617억원	2,228억원	3,000억원

- 일반지원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건없이 지원돼 우량 소상공인이 이자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존재
-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소상공인이 중복 수혜를 받는 경우가 발생
 - 대출은행이 중진공에 부정확한 정보를 전송하고 소상공인지원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간 정보공유가 미흡해 일부 중복지원이 발생
-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가 수혜자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재해 소상공인 등의 경우에 금리 부담이 존재
 - 재해 소상공인에 대한 '10년 서울·경기 복구자금은 2% 고정금리로 지원이 이루어져 자금신청의 지자체 편중 현상 발생
 - * '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한 서울·경기 지역 피해 시 지자체 지원자금을 쓸림

Ⅱ. '1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계획

1 기본 방향

-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목적성 자금으로 전환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금지원을 집중해 소상공인 사업성공률 제고 극대화
 - '10년 나들가게 지원자금과 우선지원자금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일반지원자금을 정책목적자금으로 전환해 운용

< '10년, '1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교 >

'1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1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 : 500억원	나들가게 지원자금 : 1,500억원
우선지원자금 : 1,500억원	우선지원자금 : 1,850억원
일반지원자금 : 1,000억원	정책목적자금 : 650억원
총 3,000억원	총 4,000억원

- 중진공과 대출은행(18개) 및 소상공인진흥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간 정보공유 확대로 자금지원 정보 관리 강화
 - 대출은행 담당자가 중진공에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진흥원이 지원센터에 기대출자 확인정보를 제공해 중복지원 방지
-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를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조정하고 재해 소상공인과 장애인창업자·기업에 대한 금리체계 조정
 - '10년 경제상황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기미를 보임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를 소폭 인상
 - 재해 소상공인과 장애인창업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체계로 운용하고 금리를 인하

2 세부 운용 계획

가. 세부 배정내역 : 총 4,000억원

□ 나들가게 지원자금 : 1,500억원

- 나들가게로 선정된 슈퍼마켓 점주를 대상으로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나들가게 경쟁력 강화 도모**
- 가게당 1억원을 한도로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분기별(또는 월별) 분할 상환하고 남은 30%는 만기 시 일시상환
- 지원자금 산출근거 : **38백만원 × 4,000개 업체 = 1,520억원**

* '10.10.31 기준 나들가게 평균대출금액 : 38백만원

□ 우선지원자금 : 1,850억원

-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전업 예정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지원을 연계시켜 사업성공률 제고**
- 정책자금 4,000억원 중 우선지원자금 1,850억원을 별도로 운영하며 업체당 5,000만원을 한도로 용자조건은 나들가게 지원자금과 동일

< '11년 우선지원자금 수요예측 >

구분	대상업체수	대출예상액	비고
성공창업패키지교육	2,550개	654억원	교육인원 : 1만명
경영개선교육	2,320개	587억원	교육인원 : 10만명
기초창업교육	2,320개	594억원	교육인원 : 10만명
중기청 인정 교육	60개	15억원	교육과정 : 15개
합계	7,250개	1,850억원	

□ 정책목적자금 : 650억원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및 대상에 자금을 할당함으로써 **창업성공률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
- 정책자금 4,000억원 중 정책목적자금 650억원을 별도로 운영하며 업체당 5,000만원을 한도로 용자조건은 우선지원자금과 동일

< '11년 정책목적자금 사업별 규모 >

구분	대상업체수	대출예상액	비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지원	400개	200억원	'11년 신규
시니어 창업 지원	200개	100억원	'11년 신규
신사업개발 지원	70개	35억원	
스마트 인터넷 카페 지원	50개	25억원	'11년 신규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	300개	150억원	'11년 신규
장기실업자 등 창업 지원	180개	90억원	'11년 신규
재해 소상공인 지원	150개	50억원	
합계	1,350개	650억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시니어 창업교육 수료자, 아이디어 상업화·신사업모델개발 지원 선정자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창업성공률 제고**
- 스마트 인터넷 카페(PC방)로 전환을 희망하는 업체 중 50여개를 모델숍으로 선정해 **환경개선 비용 지원**
 - * 스마트 인터넷 카페 육성방안('10.9) 중 중앙집중식 PC방 시스템 도입 지원
- 자립의지를 지닌 장애인 및 장기 실직자, 실직 여성가장, 실직 고령자, 실직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시 **사업초기 필요 자금을 지원**
 - * 기존에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11년부터 중기청으로 이관돼 시행
-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를 복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경영정상화 도모**

나. 자금지원 정보 관리체계 강화

- 중진공이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정보를 제공받을 때 수혜자 기본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받도록 해 **대출자료의 정확성 확보**
 - 대출은행의 대출정보 입력자가 수혜자 기본 인적사항을 미입력 또는 오입력 시 중진공에 업로드를 막는 시스템 개발·적용
 - 중진공 시스템 담당자에게 연말에 시스템을 개발해 연초부터 적용토록 조치
 - * 현 시스템에서는 기본 인적사항 미입력 시 그대로 업로드돼 수혜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례 존재
-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진흥원으로만 정보가 전달되는 일방적 정보전달경로를 **쌍방향 정보전달경로로 전환**해 중복지원 방지
 - 진흥원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입력화면에 **기대출자 확인 팝업을 설치**해 중복지원 예방

다. 정책자금 금리 및 체계 조정

- '10.11.16 기준금리가 2.25%에서 2.5%로 상승하는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소상공인 정책금리를 조정
 - '10년에 공자기금에서 0.33%p 차감해 결정한 금리를 '11년에는 0.13%p 차감해 결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정책금리가 **0.2%p 인상**
 - * '10년 정책자금 금리 추이 : (1/4) 4.5% → (2/4) 4.4% → (3/4) 4.08% → (4/4) 3.96%
- 정책대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변동금리 체계를 일부 조정해 **재해 소상공인과 장애인창업자·기업에 3% 고정금리 적용**
 - '10.10 당정협의를 통해 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3% 고정금리로 운용토록 결정했으며 장애인 창업자·기업 금리는 기재부 승인
 - * '10.10.20부터 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3% 고정금리로 적용

Ⅲ. 기대효과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쟁력제고에 부합하는 수요를 선별적으로 충족시켜 **효율성 증대**
 - 일반지원자금을 목적성 자금으로 전환 시 **교육 등으로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성공률 제고**
 - 자금이 조기 소진되지 않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힘든 소상공인에게 **연중 정책자금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만족도 향상**
 - * 일반지원자금 1,000억원(1.7)과 설명절자금 500억원(2.5)은 하루만에 신청마감
-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중기청 지원사업과 맞춤형으로 연계지원 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 극대화**
 - 중기청 지원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교육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자금 지원과 연계한 교육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교육 이수율 제고**
 - * '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지원정책을 알고 있는 소상공인 중 **교육정책 이용자 비율은 7.3%**에 불과
 -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했으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해 **지원사업의 성공률 제고**
 - 신사업 개발지원사업, 원스탑 장애인 창업지원사업 등 참여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창업초기 자금부족 해소**를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와 스마트 인터넷 카페 모델숍에 자금을 지원해 **프랜차이즈 및 PC방 활성화**에 기여